



진정한 친구

서부초 4-1 김정후

“띠리딩, 띠리딩”

알람이 울렸다. 학교에 갈 시간이다. 나는 대충 머리를 빗고 옷을 갈아입었다. 그리고는, 학교로 발걸음을 옮겼다. 내 이름은 김지우. 9살이다. 나는 학교에서 많이 조용한 편이고 친구도 없다. 나도 왜 나에게 친구가 없는지 안다. 난 별로 재미가 없으니까.

“야, 김지우. 넌 또 혼자냐?”

진윤찬이다. 윤찬이는 우리 반 아니, 우리 학교에서 가장 말쑥꾸러기인 아이로 소문나 있다. 나도 그런 윤찬이가 조금 얄밋다.

학교에 도착하였다. ‘드르륵’하는 문소리와 함께 반 뒷문을 열고 들어갔다. 나는 평소처럼 내 자리에 앉아 소설책을 읽었다. 이 소설책의 주인공은 친구가 많은 인기스타였다. 나는 그 주인공이 너무나도 부러웠다. 사실은 나도 친구를 사귀고 싶었다. 진정한 친구를 말이다.

“딩동댕동~”

종소리와 함께 선생님과 처음 보는 아이가 들어왔다. 그 처음 보는 아이가 우리에게 자기 소개를 하였다.

“안녕? 내 이름은 이시윤이라고 해. 나는 부산에서 왔어. 잘 부

탁해!”

그때부터였다. 목소리도 맑고, 활짝 웃는 모습이 너무나도 예쁜 시윤이가 내 맘에 쏙 들었다. 나는 쉬는 시간에 시윤이에게 꼭 말을 걸어보기로 마음먹었다. 그래서 수업 시간 때 나는 선생님의 말씀에 전혀 집중하지 못하였다.

쉬는 시간이 시작되었다. 나는 망설임 없이 시윤이의 자리로 가서 물어보았다. 물론 마음속으로는 너무 떨렸지만 말이다.

“저... 저기 시.. 시윤아.”

“왜?”

시윤이가 활짝 웃으며 말했다.

“우...우리 치...친구 할래?”

“히히, 그래에!!”

그날부터 우리 둘은 단짝이 됐다. 시간이 날 때마다 같이 뛰어 놀고, 맛있는 떡볶이도 사 먹었다. 이제는 시윤이와 내가 단짝인 것을 우리 반 아이들 아니, 전교생이 거의 다 알게 되었다.

사실 난 처음, 그러니까 시윤이가 전학 오기 전에는 너무 외로웠다. 한번은 둘이 짝을 지어 하는 음악 수업 때, 나만 짝이 없어서 너무 외롭고, 속상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학교에서 수업을 같이 듣고, 내가 별로 기분이 안 좋아도 장난을 받아들여 주고 하는 것이 친구구나?’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이제야 깨달았다. 진정한 친구란, 서로를 믿고 의지하고 서로의 기분을 맞춰주며 배려하고, 양보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말이다!

‘드르륵’

문을 열고 교실로 들어왔다. 시윤이가 활짝 웃으며 나를 반겨

주었다.

“안녕! 지우야. 오늘 우리 친구 ‘인생 네 컷’ 갈래?”

“그래, 좋아!”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웃었다.

학교를 마친 후, 우리는 ‘인생 네 컷’을 찍으러 갔다. 예쁜 포즈를 취하며 예쁘게 찍었다.

“우리는 영원한 단짝!!!!”

